

오늘의 찬송 새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오늘의 말씀 요약**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후일에 자신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동일한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진실한 고백을 들은 서편 지파는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제단은 분열이 아닌 연합의 증거인 '옛'이 되었습니다.

**예화** 두 형제가 사소한 오해로 크게 다투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형은 동생의 집이 보이지 않도록 냇가에 높은 담을 쌓아달라고 목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목수는 담 대신 두 집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생은 다리를 보고 형이 자신을 용서하고 손을 내민 줄 알고 감동하여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형 역시 목수의 지혜에 감탄하며 동생을 안아주었고 둘은 화해했습니다. 오해는 담을 쌓지만, 진실한 소통과 사랑은 다리를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옛' 제단은 오해의 담을 허물고 형제를 하나로 잇는 믿음의 다리였습니다.

**본문 묵상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고백 (21-29절)** 동편 지파는 억울한 오해 앞에서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자신들의 진심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배반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신앙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룩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가장 강력한 변호입니다.

**오해가 풀리고 하나 됨을 이루다 (30-34절)** 진심 어린 설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은 오해를 풀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칫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위기가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 됨은 무력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듣는 경청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안에서 지켜집니다.

### 삶의 적용점

- 오해 받는 상황에서도 감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심을 전합니다.
-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신앙의 증거를 남기는 삶을 삽시다.
- 공동체 안에서 선부른 판단을 멈추고, 서로에게 귀 기울여 화평을 이룹시다.

**기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해와 갈등을 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증거를 후대에 남기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25.12.23 화요일 이사야 9:1-7

오늘의 찬송 새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늘의 말씀 요약** 멸시당하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영화롭게 되며, 압제와 고통의 멍에가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예화**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밤이 되면 가로등지기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직접 등불을 켜야 했습니다. 어린 스티븐슨은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유모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이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캄캄한 거리 곳곳에 빛의 구멍을 뚫자 어둠은 물러가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와 절망으로 칠흑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구멍을 내시고 참된 소망의 길을 여셨습니다.

**본문 묵상 큰 빛이 어둠을 몰아내다 (1-5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멸시받고 고통받던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무겁게 짓누르던 멍에와 채찍은 꺾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빛되신 주님이 임하시면 기쁨과 자유가 회복됩니다.

**한 아기로 오신 전능자 (6-7절)** 이 놀라운 구원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셨으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다스리지만, 메시아는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 삶의 적용점

- 내 삶의 어두운 영역(근심, 죄, 두려움)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기를 구합니다.
- 죄와 두려움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나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합니다.

**기도** 어둠 속을 헤매던 저희에게 큰 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자유를 주시니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 마음과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25.12.24 수요일 누가복음 2:8-20

오늘의 찬송 새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의 말씀 요약** 밤에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천군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찬송합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차가운 참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이 울려 퍼지자, 영국군도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부리를 겨누던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나와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축구를 하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크리스마스 정전(停戰)’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은 곳인 전쟁터 한복판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불리자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곳, 우리의 가장 아픈 현실 속에 평화로 찾아오십니다.

**본문 묵상 낮은 곳으로 임한 기쁜 소식 (8-14절)** 왕이나 제사장이 아닌,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화려함을 쫓지만, 주님은 낮은 곳에 평화로 오십니다.

**듣고 전하고 찬송하는 삶 (15-20절)** 목자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확인하러 갔으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삶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 삶의 적용점

-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나아갑시다.
- 화려한 행사가 아닌, 내 마음의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을 모읍시다.
- 목자들처럼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합시다.

**기도** 낮고 천한 이 땅에, 그리고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목자들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저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2025.12.25 목요일 누가복음 2:25-35

오늘의 찬송 새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의 말씀 요약**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송하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것을 예언합니다.

**예화**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믿지 않는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3명은 금방 믿었지만, 나머지 2명은 물러가 50년 넘게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물러가 세상을 떠난 직후, 마지막 한 친구까지 회심하여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므온 역시 평생을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본문 묵상 기다림 끝에 만난 구원 (25-32절)**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을 때, 그의 인생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러내시는 표적 (33-35절)**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지만, 동시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의 깊은 속마음과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십니다.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삶의 적용점

- 더디게 보여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열방을 향한 마음을 품읍시다.
- 말씀의 빛 앞에서 내 마음의 숨은 죄와 동기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기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시므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며,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